

A Study on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School Psychosocial School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Bonding with Teacher in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on Happiness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의 이중매개효과

Eun Jeung Kim¹, Yun-Jeong Kim²

김은정¹, 김윤정²

¹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coronia3@knu.ac.kr

²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o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woyun21@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Yun-Jeong Kim

Abstract: In this study, based on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verify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psychosocial school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bonding with teachers in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on happiness. Data from 325 high school students who responded to the supplementary survey were used. First,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was somewhat lower than the median value, but their psychosocial school environment satisfaction, bonding with teachers, and happiness were quite high. Second, the higher the academic stres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lower the happiness, but the intensity was somewhat lowered by the satisfaction of the psychosocial school environment and the bond with teachers. In other wor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the school environment and bonding with teachers was verifi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plan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psychosocial school environment and the bond with teachers was proposed to reduce the negative influence of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on their happiness.

Keywords: Academic Stress, Psychosocial School Environment Satisfaction, Bonding with Teacher, Happiness, Double Mediating Effect

요약: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16차(2021년)의 데이터 중 아동부가조사에 응답한 325명의 고등학생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첫째,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중앙값보다 다소 낮으나 심리사회적 학교환경만족도, 교사와의 유대감, 행복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고등학생의

Received: December 05, 2022; 1st Review Result: January 19, 2023; 2nd Review Result: February 20, 2023
Accepted: March 31, 2023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지만,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에 의해서 그 강도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학업스트레스,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 교사와의 유대감, 행복감, 이중매개효과

1. 서론

청소년기는 안전하고 건강한 성인기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다양한 발달과업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이때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 학업적 성취 뿐 아니라 교사나 친구 관계를 통해 심리·정서적 지지를 통해 행복을 느낄 뿐 아니라 스트레스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1].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객관적인 조건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긍정과 부정적인 정서를 포함하는 연속적 개념으로서, 내적, 외적 환경 요인을 모두 포함한 개인의 주관적 삶을 평가하는 주관적 행복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

그 원인으로는 한국의 청소년이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적인 교육 제도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지수가 낮아 우울함이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기의 학업은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발달과업이지만, 이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청소년의 행복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3][4]. 그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사회심리적 적응을 의미하는 학교생활 만족도[5]와 친구나 교사의 지지 등의 학교 유대감은 학생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6]. 즉 친구들과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7], 사회적 지지는 학업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 중 교사와의 유대감은 학업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3][8]. 즉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물론 고등학교 시기의 친구관계가 중요하나 중학교 시기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 및 교사와의 관계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한편, 황환과 김영환[9]은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51편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행복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행복하고, 학교 유대감이 높을수록 행복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만, 학교급에 따른 차이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때 학업스트레스의 수준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으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거나 오히려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장기간 경쟁적인 분위기에 노출되어,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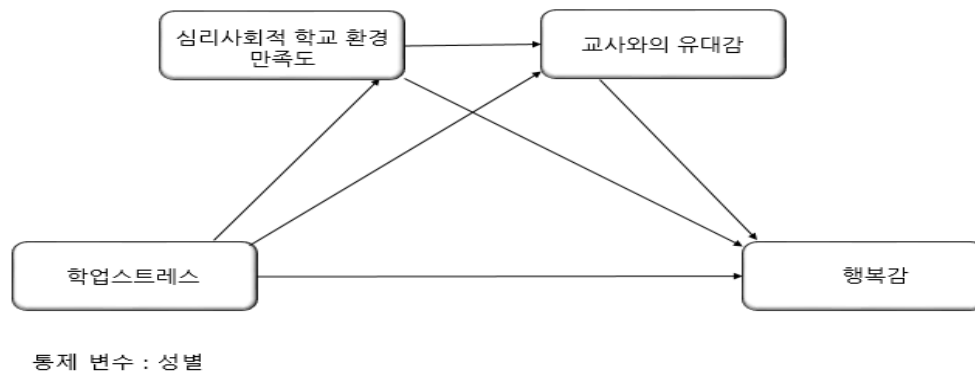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해 준다[10].

이렇듯 청소년 시기 중 가장 학업스트레스가 높으며, 행복감 수준이 낮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나 교사와의 유대감과 관련된 연구를 분석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이도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청소년의 성별을 통제변수로 활용하고, 학교급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로 분석에 반영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가정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복지패널의 16차(2021년)[11]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목표 모집단은 2018년도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이며, 조사 모집단은 2005년 인구 센서스 90% 조사도구를 포함시킨 종단적 패널 자료이며, 매년 설문조사 전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는다. 본 연구대상은 한국복지패널 2021년 16차의 아동부가조사에 응답한 고등학생 중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25명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변수가 학업 및 학교와의 관련 변수로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측정도구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는 4문항 4점 리커트형(1=전혀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 척도로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2006)[12]와 서울아동패널(2005)[13]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은 .839이다.

첫번째 매개변수인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는 8문항 4점 리커트형(1=전혀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 척도로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2006)[12]과 서울아동패널(2005)[13]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3개 문항(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질 때가 있다, 시험 볼 때 다른 친구의 답안지를 본 적이 있다, 허락없이 교실에서 나간 적이 있다)은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학교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은 .802이다.

두번째 매개변수인 교사와의 유대감은 6문항 4점 리커트형(1=전혀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 척도로서, Cavazos[14]의 학교생활척도(School Life Scale)를 박현선[15]이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2개 문항(수업 중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기를 죽인다, 크게 잘못된 일이 없는데 선생님께 혼나는 경우가 있다)은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유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은 .803이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학교 유대감이었으나 문항의 내용이 교사와의 유대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유대감으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행복감은 6문항 5점 리커트형(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척도로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1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1개 문항(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는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은 .831이다.

2.4 연구대상자의 특징

고등학생의 성별, 학년,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48.9%, 여학생이 51.1%로 고른 분포를 보이며, 2학년과 3학년은 각각 35.4%, 34.8%로 비슷하며 1학년은 29.8%로써, 2학년이나 3학년에 비해 다소 적은 비율이다. 가구유형을 보면 일반가구에 속하는 경우가 88.6%로 대다수가 일반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고등학생의 개인적 특성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빈도	유효 퍼센트
성별	남학생	159	48.9
	여학생	166	51.1
학년	1학년	97	29.8
	2학년	115	35.4
	3학년	113	34.8
가구 유형	일반가구	288	88.6
	저소득가구	37	11.4

2.5 분석방법

SPSSWin 24.0버전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기술 통계, t-test, oneway ANOVA,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SPSS PROCESS macro 4.2 version 6번 모델을 이용하여 이중 매개효과 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스트레스는 4점만점에 2.478점,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는 3.357점, 교사와의 유대감은 3.234점이며, 행복감은 5점 만점에 3.937점으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만족도, 교사와의 유대감, 행복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학업스트레스는 중앙값인 2.5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모델을 분석하기 전 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의 절댓값은 3을 초과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댓값도 8 또는 1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표 2]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

[Table 2] General Trend of Key Variables <N=325>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학업스트레스	2.478	.682	-.462	.135	-.192	.270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	3.357	.362	-.092	.135	-.381	.270
교사와의 유대감	3.234	.414	-.084	.135	.563	.270
행복감	3.937	.686	-.359	.135	-.248	.270

3.2 고등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고등학생의 성별, 학년, 가구 유형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 교사와의 유대감, 행복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았다. 이에 따라 연구모형 검증에서는 ‘성별’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는 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 3]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Key Variables by Gender in High School Students

		N	평균	표준편차	t값
학업스트레스	남학생	159	2.344	.709	-3.512**
	여학생	166	2.605	.630	

**p<.01

4.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 및 교사와의 유대감의 이중매개효과

본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전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수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검증되었다. 행복감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고($r=-.316, p<.001$),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r=-.565, p<.001$) 및 교사와의 유대감($r=-.442, p<.001$)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졌다. 또한, 상관계수인 r 계수를 보면, .188에서 .591까지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되었다.

[표 4]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N=325>

	학업스트레스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	교사와의 유대감	행복감
학업스트레스	1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	-.205***	1		
교사와의 유대감	-.188**	.591***	1	
행복감	-.316***	.565***	.442***	1

*** $p<.001$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 및 교사와의 유대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17]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표 5, 그림 2]. 이때 앞서 고등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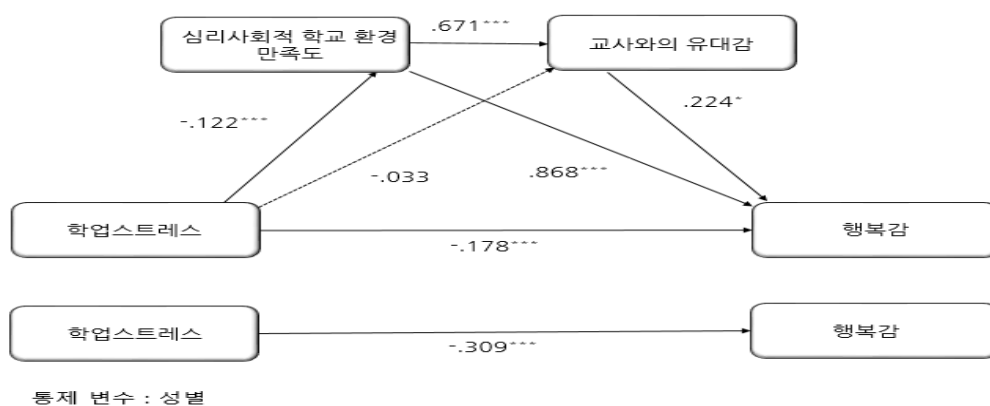
먼저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icient=-.309, $p<.001$). 즉, 고등학생이 학업스트레스를 높게 느낄수록 행복감은 낮아진다.

다음으로는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경로별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학업스트레스는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Coefficient=-.122, $p<.001$),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는 교사와의 유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Coefficient= .671, $p<.001$), 교사와의 유대감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Coefficient= .224, $p<.05$). 따라서, 고등학생이 학업스트레스는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을 경로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Coefficient= .309였으나,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이 추가되었을 때 Coefficient= .178로 감소하여,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이 이중 매개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표 5]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 및 교사와의 유대감의 이중매개효과

[Table 5] Double Mediating Effect of School Psychosocial School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Bonding with Teachers <N=325>

종속변수	독립변수	Coeffect	SE	t 값	p	LLCI	ULCI
행복감	상수	4.796	.161	29.725	.000	4.479	5.113
	학업스트레스	-.309	.054	-5.709	.000	-.416	-.201
	성별	-.061	.074	-.829	.408	-.206	.084
R2 =.106, F=18.216, p=. 000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	상수	3.518	.087	40.391	.000	3.347	3.690
	학업스트레스	-.122	.029	-4.177	.000	-.180	-.065
	성별	.094	.040	2.355	.019	.015	.172
R2 =.058, F=9.977, p=. 000							
교사와의 유대감	상수	1.153	.203	5.687	.000	.754	1.552
	학업스트레스	-.033	.028	-1.159	.247	-.089	.023
	심리사회적 학교환경만족도	.671	.053	12.732	.000	.557	.774
	성별	-.059	.038	-1.565	.119	-.134	.015
R2 =.359, F=59.977, p=. 000							
행복감	상수	.956	.346	2.761	.006	.275	1.637
	학업스트레스	-.178	.046	-3.837	.000	-.269	-.087
	심리사회적 학교환경만족도	.868	.105	8.255	.000	.661	1.075
	교사와의 유대감	.224	.091	2.468	.014	.045	.403
	성별	-.143	.062	-2.312	.021	-.265	-.021
R2 =.385, F=50.031, p=. 000							



*p<.05, ***p<.001

[그림 2]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 및 교사와의 유대감의 이중매개효과

[Fig. 2] Double Mediating Effect of School Psychosocial School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Bonding with Teacher

다음으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의 이중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0%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스트레스→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교사와의 유대감→행복감의 이중매개효과 값 -.018은 부트스트랩 하한 값 -.148과 상한 값 -.003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은 학업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이중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6]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의 간접 효과 검증

[Table 6] Indirect Effect Verification of Psychosocial School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Bonding with Teacher <N=325>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총 효과	-.132	.037	-.205	-.064
학업스트레스→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 행복감	-.106	.030	-.168	-.050
학업스트레스→ 교사와의 유대감→ 행복감	-.007	.009	-.027	.007
학업스트레스→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 교사와의 유대감→ 행복감	-.018	.010	-.148	-.003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16차(2021년)의 데이터 중 아동부가조사에 응답한 325명의 고등학생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중앙값보다 다소 낮으나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 교사와의 유대감, 행복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간의 비교 연구이긴 하였으나, 고등학생이 다른 중학교 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고 행복감은 낮다는 연구 결과[9]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도출한 결과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지만,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에 의해서 그 강도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을 경로하여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교 유대감은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높인다는 연구[5-7]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 경쟁적인 분위기와 학업스트레스를 당연하게 수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학업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의 단순 매개는 유의하였으나 교사와의 유대감의 단순매개는 유의하지 않아서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를 우선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문화 조성, 친근함을 높이기 위한 학교 공간 조성,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상담 공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의 관계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이나 심리·사회적 학교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예술제, 체육대회, 동아리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교사와의 유대감 및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M. Kim, B. Sohn,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ctivity satisfaction and school adaptation in adolescents: application of development asset model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PYD) theor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9), Vol.26, No.12, pp.425-453.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19.12.26.12.425>
- [2] S. Y. Park, H. Lee,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adolescents, *Stress*, (2013), Vol.21, No.2, pp.73-84.
UCI: G704-002182.2013.21.2.007
- [3] J. Y. Park, The relationships of adolescent academic stress, school violence and subjective happin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pathway of friend, family and teacher's support, *Journal of Social Science*, (2017), Vol.43, No.2, pp.263-289.
DOI: <http://dx.doi.org/10.15820/khjs.2017.43.2.011>
- [4] K. Suh, Academic stresses, subjective well-being, and feeling of happiness in adolescence: Focused on roles of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6), Vol.23, No.11, pp.137-157.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16.11.23.11.137>
- [5] D. H. Kim, J. H. Kim, Social relations and student's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011), Vol.45, No.4, pp.128-168.
UCI: G704-000205.2011.45.4.001
- [6] J. Y. Choi, J. S. Kim, A longitudinal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school life satisfa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general schools, innovative schools, and innovative sympathized schools in Gyeonggi-do-,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18), Vol.36, No.1, pp.25-50.
DOI: <http://dx.doi.org/10.22553/keas.2018.36.1.25>
- [7] E. J. Jo,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happiness of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focused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low-income families, *Forum for youth culture*, (2014), Vol.37, pp.104-127.
Available from: <http://e-ffyc.re.kr/xml/03712/03712.pdf>
- [8] K. R. Won, H. J. Lee, Academic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connectedness, depression and anxiety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9), Vol.26, No.9, pp.79-104.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9.09.26.9.79>
- [9] H. Hwang, Y. H. Kim,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n happiness determinants among domestic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7), Vol.24, No.7, pp.1-28.
- [10] Y. Jeong,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level and stress factors on subjective happiness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2022), Vol.31 No.3, pp.179-198.
DOI: <http://dx.doi.org/10.17643/KJCE.2022.31.3.10>

- [11]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from the 16th Korea Welfare Panel Survey in 2021, (2022)
Available from: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
- [12] Korean Youth Panel Survey, Korean Youth Panel Survey Questionnair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2006)
Available from: www.nypi.re.kr
- [13] Seoul Children's Panel, Seoul Child Development and Welfare Survey Questionnair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 [14] L. F. Cavazos, Report to Congress on the Education for Homeless Children and Youth Program,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1990)
- [15] H. S. Park, School Adaptation Flexibility of Poor Adolesc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98)
- [16] Institute of Social Development of Yonsei University, Establishment of Happiness Index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Report on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results, Yonsei University, (2010)
- [17] A. F. Hayes,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2018), Vol.85, No.1, pp.4-40.
DOI: <https://doi.org/10.1080/03637751.2017.1352100>